기독교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강미랑 (총신대학교)(1-1)

논문초록

현대인에게 믿음은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그 믿음에 근거해 형성되는데, 기독인의 정체성의 근원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인의 정체성은 성경해석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기독인들은 늘 새로운 질문들을 만난다. 이때 교회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공동체로 자리한다. 특히 교회는 소그룹 성경공부라는 교육의 장으로 개인들을 초대함으로 여러 그룹원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함으로 관계적 정체성 형성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의 활동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신앙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변화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이론을 소개하며, 기독인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독교 이야기의 해석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과,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의 이야기적 정체성 형성을 돕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독인의 정체성, 소그룹 성경공부,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정체성 재구성, 해석학적 공동체

I. 서론
II. 본론
1.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1)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
2)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에 있어서 이야기(Narrative)의 의미
3)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야기 해석의 세 국면
4)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의 의의
2. 교육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1) 성경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2) 정체성 형성의 장,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III. 결론

I. 서론

마리아 해리스(Harris)는 그녀의 책 Fashion Me a People 서론에서 옹기장이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교육사역과 그에 동참하는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교육사역의 의의를 설명한다(1989:15). 필자의 정체성 교육도 이러한 교육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왜곡되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구속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교육적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절대자와 만날 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인의 정체성 형성과 성경읽기는 긴밀하고 필연적 관계가 있다. 칼빈은 자아를 이해함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앎 없이 자아를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며 그 상관성을 설명한다 (Calvin, 2006: 35-38).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역, 그리고 새롭게 빚으시는 교육사역의 동역자로서 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II. 본론

여기서는 먼저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이야기 정체성의 의미를 연구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독교의 위대한 이야기로서의 성경해석과 정체성의 관계를 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또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1)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

현대 서구사회가 개인주의, 자기중심의 인간화현상으로 소외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혁주의 철학자 리꾀르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있고, 신뢰할만한 인간상을 구상하였다. 그는 말하고, 행동하고, 고통하는 인간에로 관심을 기울인다(윤성우, 2004: 83-84). 그는 말과 행동의 상관성을 통해 이야기와 행동까지 연결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의 윤리적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개선으로까지 확장된다(Ricoeur, 1992: 180).

첫째로, 리꾀르의 자아에 대한 오랜 탐구는 우리가 자아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를 통한 반성적 과정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Ricoeur, 1992: 1). 즉 리꾀르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이해함과 사회를 이해함이 필연적임을 강조한다. 자아, 타자, 사회(환경) 이 세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윤성우, 2004: 76-77).

둘째로, 리꾀르는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정체성의 두 의미를 설명하는 두 라틴어 어원 'idem'과 'ipse'의 의미에 주목한다. 리꾀르는 정체성을 'idem-identity', 즉 시간 안에서의 동일성(sameness), 즉 불변의 개념에 'ipse-identity', 즉 자아(selfhood)의 개념을 통합하여 시간 안에서 성장, 발전 가능한 고유한 자아로서 개인의 정체성의 역동적 측면을 발견한다.

셋째로, 그의 'ipse-identity'는 자아와 타자사이의 변증법을 내포한다. 즉 리꾀르의 자아정체성 이해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자아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Ricoeur, 1992:2-3, 양명수 2000: vi).

리꾀르는 개인의 정체성 이해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의 텍스트처럼 해석하고, 또한 자신 밖의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해석하는, 즉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해석의 작업에서 그 해석의 공동체가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정당한가가 점검되어야 함도 주장한다. 이렇게 참된 자아의 발견은 개인의 내부에서, 스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 다른 이야기로부터 반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그의 자아해석학은 기독인이 성경이라는 종교적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지 구체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2)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에 있어서 이야기(Narrative)의 의미

리꾀르는 '이야기(narrative)'의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자아이해의 다양한 차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그는 이야기성(narrativity)과 인간정체성을 연결한다. 이 때 이 이야기성은 개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 있는 윤리적 관계성을 의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성은 반복적으로 말해지는 한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아니라 생각들, 개념들, 행동과 관련한 윤리적 결정들까지도 포함한다. 즉 이야기적 정체성은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 뿐만아니라 개인의 삶의 특정한 순간들에서 행동함을 통하여도 형성된다.

리꾀르가 사용하는 'narrative'의 의미는 역사적 기록과 소설적 이야기 두 형태를 모두 포함

하는 담화(discourse)로서의 의사소통의 형식이다. 여기에서 그는 성경의 한 장르로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 담화의 형식으로서 narrative의 기능에 주목한다.

리꾀르의 자아해석학은 인간경험에 이야기적으로 접근한다. 이 이야기 기능으로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 이질적인 요소들을 플롯(plot)이라는 이야기의 기능을 사용해 정리함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Hettema, 1996: 38). 즉 이야기는 역사와 허구(fiction)사이를 매개한다. 그의 책 Time and Narrative III에서 그는 사실과 허구(fiction)사이에서 자아 해석을 시도한다. 소설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제공한다. 이야기는(narrative)는 실제를 위한 참고의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사실의 의미와 해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성경은 이러한 면에서 역사성과 이야기성을 모두 가진 책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 서술이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항상 사건과 상징들의 해석이 얽혀있다. 이야기적 기능의 도움으로 역사적 시간이 단축된다. 리꾀르는 문학적 활동으로서의 이야기를 취하고, 플롯의 개념을 강조한다. 플롯은 불일치하는 요소들을 일치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Ricoeur 1995: 308-309).

이야기의 세계, 텍스트의 세계는 인간의 행동, 경험의 세계의 반영이다. 인간의 행동은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고, 언어는 행동을 내포한다. 리꾀르의 정체성 연구는 시간 안에서 불일치하는 자아, 차이들을 가진 자아내면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 자체에서 발견되는 차이, 불일치는 자아내면에 포함된 타자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는 것이 이야기의 기능이다. 이야기는 더 나아가 나와 너, 타자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이야기, 즉 나와 다른 이야기들을 접함으로 나의 자아는 타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자아 내면의 차이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리꾀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인간행동과 언어 사이를 연결하는 한 열쇠로 '모방(mimesis)'의 개념을 발견한다. Mimesis는 "표현(representation)의 역학, 즉 실제로부터 문학적 작품으로 전이시키는 역학이다."(Hettema, 1996: 38). 리꾀르는 Narrative를 행동의 mimesis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모방(또는 재현)의 개념은 리꾀르의 이야기적 해석학의 중심개념이 된다. 리꾀르는 이 개념을 구성화 행동의 역학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화(emplotment)로 번역한다.

3)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야기 해석의 세 국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리꾀르의 이야기 해석이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삶의 실천적 제안을 제공한다.

리꾀르는 그의 미메시스(mimesis)의 개념을 세 측면에서 해석에 적용한다. 이 이야기의 세 국면을 인간행동으로의 모방을 위한 각각의 모델로 설명한다 : 본문이전의 삶의 세계로부터의 모방, 본문의 모방, 본문으로부터 결과한 모방. 그는 이 세 측면을 선구성(prefiguration), 구성(configuration), 재구성 (refiguration)으로 부른다. 리꾀르는 이 세 국면으로 이야기와 인간경험의 상호연결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자는 독서를 통해 선구성으로부터 구성, 재구성의 국면에서의 이야기와 경험들을 연관시키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가 제안하는 다양한 가능성들과 만나게 된다. 그로부터 자신의 삶을 위한 실

천적 가능성들을 수용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가 그룹 안에서 성경을 함께 공부할 때, 성경 본문의 이러한 이야기의 언어적 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으로부터 증거들을 만나고, 그에 반응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narrative arc)를 통해 우리의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각조각의 과거 사건들, 경험들이 나 개인과 우리의 집단적 정체성의 해석(construction)안에서 의미있는 사건들로 재구성된다(Venema, 2000: 92).

① 선구성(prefiguration)

이 국면에서는 본문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행동, 삶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행동들의 의미가 본문처럼 해석된다(Ricoeur, 1984: 57-58, Hettema, 1996: 48-50) 행동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동기, 목적, 상황, 결과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기준들이 요구되는데, 보편적인 이해와 함께 문화적 특수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본문속의 행동들이 가진 상징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룻이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간 행동은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행동의 이해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행동은 늘 상황 속에 있고, 그 행동은 말해져야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 의해 해석될 때 그 상황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윤리적 판단이 들어감을 인정해야한다.

리꾀르는 우리의 인생이 온통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말하고, 따르고, 이해하는 것은 단지 말해지지 않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의 연속일 뿐이라고 한다(Ricoeur, 1984: 75, 115). 이 선구성의 국면을 통해 우리는 본문으로 기록되기 이전의 인간의 경험들, 행동들에 까지 관심을 가지고 자아이해를 위한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② 구성(Configuration)

이야기 해석을 위한 두 번째 국면은 '구성'이다. 리꾀르는 이 구성화 작업을 본문을 상상력있게 구성하는 저자의 측면과 본문의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의 측면 양측에서 이해한다(Stiver, 2001: 68). 즉 이 국면은 저자의 활동과 독자의 활동 둘 다를 반영한다.

선구성의 실제의 영역은 구성의 과정을 통하여 본문으로서 변형된다. 구성화의 작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의 이야기적 연합을 야기하고, 다양한 이종의 이야기 사건들을 지적 전체의 중심적 사고로 시간적 연속성 안에 연결시켜 일치하는 불일치(concordant discordance)를 생산한다(Venema, 2000: 101, Ricoeur, 1984: 66). 즉 이전에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던 연관성 없는 일들이 이야기의 구성에 의해 의미있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본문성(textuality)이 중요하다. 본문은 그것의 원래적 저자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을 소격화(distanci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꾀르에 의하면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구성의 국면에서의 모방의 가치는 본문이 표현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Hettema, 1996: 39). 이야기에서 이 소격화는 은유의 창조

적 기능과 밀접히 연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는 독자의 세계를 거주할 만한(habitable) 세계로 만든다(Ricoeur, 1984: xi). 리꾀르에게 있어서 역사적 시간은 미래, 현재, 과거가 그 안에서 만나는 열린 매개로서 묘사된다. ,

리꾀르는 이야기적 상상이 삶의 세계 안에서 행동의 가능성을 제공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상의 역할로 조직화, 전통화와 혁신의 긴장 속에서 구성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본문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실제적 독자와 구별되는 내포된 독자(the implied reader)가 있다는 것이다. 내포된 독자는 구성적 상상의 규범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즉 구성의 미메시스는 독자를 본문으로 초대하고, 독자에게 호소한다. '따를 수 있음'의 길로 내포된 독자를 본문으로 초대한다(Hettema, 1996: 63). 본문은 저자의 활동과 독자의 활동이 만나는 장을 마련한다. 독자는 저자의 구성을 따르고, 동시에 독자는 독서의 활동을 통해 본문의 세계를 구성한다. 독자는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 인물들, 배경 등의 코드들이 어떻게 다양한 관점들과 소리들과 연합되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학적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김한식, 2007: 221-222).

③ 재구성 (Refiguration)

이야기적 모방의 세 번째 국면은 구성을 통해 발생한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 있는 재구성이다(Ricoeur, 1984: 67, 71, Valdes, 1991: 148). 독서의 행동을 통하여 독자의 세계와 본문의 세계는 만난다. 독서와 해석에 의해 독자는 본문과 자신의 삶의 연결을 시도한다. 본문이 지시하는 의미에 참여하고자 시도한다. 독자의 세계는 이야기의 세계와 교차하며, 이야기와의 대면에 의해 재구성된다(Hettema, 1996: 39).

구성이 이야기의 시적 기능을 통해 실제적 삶으로부터 상상적 거리를 취하고, 실제의 한 조각의 재묘사가 고려되어지는 반면, 독서의 행동은 언어를 실제로 다시 연결한다(Venema, 2000: 2). 재구성은 이야기로부터 독자의 실제적 삶으로의 전이의 과정이다. 독서에서 이야기적 의미는 본문의 가치있는 세계로부터 독자의 실제적 세계로 합쳐진다. 본문의 정체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유사하게 적용된다(Venema, 2000: 102).

그러므로 재구성으로서 독서의 행동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상황의 이야기적 규칙들을 따르며그들의 이야기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독서의 과정에서 독자들은 독자의 개인적 상황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이야기적 정체성은 각각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서 형성된다.

리꾀르는 이 이야기의 해석학적 구조에서 구성과 재구성 사이의 전이를 플롯의 두 특징, 즉 조직화와 전통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독서의 행동에 의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Ricoeur, 1984: 76-77). 생산적 상상의 행동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자의 생산적 상상력은 타자의 세계로서의 본문의 의미를 상호적으로 구성한다.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사이의 상호작용은 독자들에게 능동적 반응을 요구한다(Venema, 2000: 107). 여기서 리꾀르의 자아 정체성의 이해와 부합하게 자아는 타자와 만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서의 행동은 "자유와 구속"의 변증법을 일으킨다(Ricoeur, 1988: 177). 즉 리꾀르

는 상상의 공간 안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상호작용을 묘사한다(Venema, 2000: 108).

리꾀르는 독서의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의 의미를 추가한다. 모든 독서의 행동은 개인적인 반응일지라도 본문의 의미는 항상 다른 독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그리고 해석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전통들에 의해 이해되어진다(Ricoeur, 1988: 172).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독자들과의 연합 안에서 참고의 다른 세계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Venema, 2000:108). 이것은 또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독자의 정체성과의 관계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한 세계를 만드는 전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독자들의 실존에 한 세계를 던져준다(Ricoeur, 1976, Ricoeur, 1984: 80).

리꾀르의 본문 해석학은 같은 것(the Same)과 다른 것(the Other), 그리고 자유와 구속 사이의 변증법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재구성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그의 본문 해석학적 이슈는 생산적 상상에 의해 지배받는 개인적 독자에 의한 본문에로의 반응에 초점을 둔다(Venema, 2000: 110). 이 재구성은 본문을 읽고, 본문을 들은 결과로서 청중과 독자가 그 증거를 삶으로 입증하는 것, 증거에 응답하는 것, 특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리꾀르는 독서의 행동을 통한 재구성의 과정을 매우 능동적, 적극적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즉 본문을 수용하는 것은 또한 행동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삶으로 그 의미를 입증하는 것이다.

4)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의 의의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은 정체성의 윤리적 차원을 내포한다. 리꾀르는 매일의 삶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선한 삶을 추구한다. 이 통찰로 개인주의적 현대사회를 향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인격을 말한다. 그와 함께 인간의 정체성은 올바른 제도, 기관이 중요함을 말한다. 그의 책 Oneself as Another에서 자아이해는 정의로운 기관 안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한 선한 삶을 목적한다. '기관-institution'에 의해 그는 역사적 공동체의 의미 안에서 함께 사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에서 리꾀르는 모든 인간의 동등성을 적용하면서 정의에 동정(solicitude)을 추가한다(Ricoeur, 1992: 202). 리꾀르의 인간 정체성으로의 윤리적 접근은 자율의 원리와 함께 상호성의 윤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타자를 향한 자발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리꾀르가 제시한 이야기적 정체성은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서 열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행동을 시작함으로 우리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우리의 본문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율적 반응은 우리의 이야기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이야기적 정체성은 정당한 공동체, 기관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책임있는 인간을 의도한다. 자아와 타자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제시하는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방식으로 그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계속적인 독서의 행동으로 그리고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자아를 타자들을 향하여 확장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적 정체성은 계속적인 반성의 작업을 요청하는 윤리적, 관계적, 실천적

정체성이다.

2. 교육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1) 성경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형성 과정에 해석적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작업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적 작업임을 내포한다.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공동체의 신앙 중심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이 기독교 공동체의 권위있는 책으로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해석의 기준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인의 신앙은 이 성경의 해석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성경의 해석작업은 이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의 작업이다. 그러므로 기독인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이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해석적 작업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다 .

리꾀르의 정체성 이해를 위한 자아와 타자사이의 변증법은 자신의 이야기와 타자의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향해 발전한다. 그의 본문해석학은 타자, 타자들, 더 나아가 절대타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서 리꾀르는 본문을 하나의 타자로 보고, 그 본문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참고를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타자개념은 절대타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독서, 또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만난다.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이론은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를 흡수함으로 그이야기로부터 받아들여져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해서 개인에게 적용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특히 종교적 이야기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과 종교적 전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숙고함을 통해 그 종교적 이야기를 해석하는 시적 지성과 반성적 경험의 역동적 작업을 거쳐 공동체의 해석의 틀로 형성되어진다.

성경 이야기 자체가 갖는 생각하게 만드는 힘(the evocative power)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개인들의 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힘을 가진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에서 가능성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즉 이 종교적 이야기의 힘이 매일의 실제의 상황 안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실제를 그려낸다(Alma, 1998: 327-328). 기독교적 이야기, 즉 성경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이야기로부터의 관점들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헌신할 수 있다. 알마(Alma)는 이렇게 성경이야기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정체성 형성의 작업을 관점, 방향성, 헌신의 세 측면에서의 동일시로 설명한다(1998: 286).

리꾀르는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의 자율을 강조함과 동시에 독자는 또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직시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타율적 요소가 있다. 리꾀르는 성경을 읽음을 통한 해석의 과정에서 자율과 타율 둘 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석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비판적 활동을 내포하는 대화적 과정이다(Alma, 1998: 313). 동시에 성경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위한 관점, 방향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에 헌신을 호소한다.

2) 정체성 형성의 장,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해석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이 모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정체성 형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작업이므로, 교회의 공동체는 정체성 형성의 교육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여기서 교회 안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나의 장으로 제시한다.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토론하는 작은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성경적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벌써 1880년부터 사경회를 통해 말씀 연구의 붐이 있었다. 당시 남자 소그룹 성경공부, 여자 소그룹 성경공부가 있었고 (김광수, 1981: 21-29), 이 말씀 연구는 조선시대 말 시대적 암흑기에 살았던 우리 1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성경의 소망의 이야기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성경적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냄으로 그들의 삶에 능력으로 작용하였던 모범을 낳았다. 그들의 이야기 정체성은 실제를 변화시키고, 성경말씀이 제공하는, 즉 성경의 이야기가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자신들의 실제에서 시도하고, 직접 체험하는 실천적 정체성이 되었다.

1970년대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 다시 소그룹 성경공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 기존교회에서도 소그룹성경공부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최근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과 함께 소그룹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교육의 장은 기독인의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성경과의 만남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을 위한 교회교육의 장으로 제시하며, 정체성 재구성을 목적하는 그룹성경공부 지도를 위한 몇 가지 교수학적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그룹성경공부는 세 파트너 간의 대화이다.

용꺼(Jonker)는 그룹성경공부를 성경본문과 성경공부의 참여자들과 인도자 사이의 대화라고 특징짓는다. 이 대화의 모델은 성경의 세계와 성경공부 참가자들의 세계와 인도자의 세계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성경교수학적 행동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 셋이 성경공부라는 하나의 의사소통적 대화의 세 파트너로서 그들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Jonker, 1992: 64).

교회는 이러한 성경공부를 계획하고, 리더를 훈련하고, 그룹원의 신청을 받아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그룹성경공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 교회 안에서 정체성 형성, 재구성을 목적하는 성경공부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도자는 성경해석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신학수업을 받은 교역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들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성경공부에 초청

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인도자인 필자는 그들을 위해 30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정황을 비춰볼 수 있는 본문을 선정할 것이다. 필자는 룻기를 본문으로 택하여 6주간의 시리즈 성경공부를 기획하였다.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룻기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공부의 세팅으로 성경본문 룻기와 30대 여성 10명과 인도자 세 파트너의 대화가 시작된다.

세 파트너 각각은 역할이 있다고 하였는데, 먼저 성경은 이 성경공부의 한 주체이다. 대개는 성경공부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고 성경은 그 대상이 될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은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성경공부의 한 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만, 죽어있는 종이책처럼 대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들로 성경을 맘껏 풀어내는 실수를 범한다. 여기서 필자는 성경의 인격적 자리를 강조한다. 성경이 이 대화에서 말씀하시도록 성경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삼자간의 대화가 되도록 리꾀르의 이야기 해석의 원리들을 기억하길 바란다.

성경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인물, 아브라함, 모세, 한나, 다윗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그들이 새로운 말씀, 약속, 소망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판의 소리를 들을 것처럼, 질책당한 것처럼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리꾀르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본문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베버(H.R. Weber)는 성경공부 안에서 성경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주체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갑자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뒤에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때 우리가 탐구하던 그 대상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보다 더 잘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체가 되신다. 우리는 창조속에, 역사속에, 모든 나라들 속에, 개인들의 삶속에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한다.”(Weber, 1995: x).

두 번째 파트너는 그룹, 즉 성경공부의 참가자들이다. 그룹은 개인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특히 관계적 정체성 발달을 위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룹은 각각의 타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은 신앙 안에서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나눌 공간을 제공한다. 그룹은 믿음 안에서 참여자 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Ark & Roest, 2004: 18). 이 성경공부는 세 참여자들의 담화를 다룬다. 이야기를 나눔은 참여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타자들의 소리를 듣도록 해준다. 성경공부의 참가자들은 그룹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타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

모든 그룹의 참여자들은 성경으로부터의 증거의 증인들이다. 개인의 이야기적 정체성은 환경적 요소없이 타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형성될 수 없다. 필자는 30대 여성들과의 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성경으로부터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삶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보았다. 그룹활동 자체가 정체성 재구성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었고,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참신한 새로운 발견들에 서로 배움의 즐거움을 얻었고, 또한 자신들의 삶

을 이야기함으로 결속과 동정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다. 성경과 크리스챤 동료들과의 만남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었다.

참여자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자발성에서 참여했다면 더더욱 이 그룹활동은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룹의 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열심에 의해 도전받고, 함께 격려하는 귀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파트너는 그룹성경공부의 인도자이다. 인도자는 신학적 훈련을 받은 교역자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고, 재구성해가는 그룹성경공부에서 평신도 개개인의 창의적인 발견을 고무하지만, 또한 바른 해석이 되도록 지도자가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 개개인들의 자신들의 삶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그들의 질문들, 감정들을 말씀 앞에 쏟아 놓고, 함께 토의하고, 자신들의 발견을 나누는 그룹 성경공부에서 인도자는 가르치는 교사라기 보다는 함께 말씀 앞에선 동료 참가자이다. 성경이 위대한 교사가 되도록 교사의 자리를 내어드린다. 그리고 개개 참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고, 그들의 창의적 작업을 고무시키되, 보다 풍성한 발견을 위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하고, 성경 66권의 흐름 속에서의 본 성경의 위치와 상호관계를 신학한 자로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프리스(Vries)는 이러한 지도자를 '인도하는 학습자(leading learners)'로 표현한다(2008: 246).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성경공부를 성경을 통한 자기발견으로의 여행으로 정의한다면, 지도자는 여행의 동반자이면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이자, 그들의 영적 순례의 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이다.

② 그룹성경공부를 위한 교수학적 원리들

필자는 성경공부를 통한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교회교육이 지향할 교수학적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상황을 고려하는 교육 공동체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속에 있는 개인들을 이해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교육은 신앙과 공동체를 위한 비판적, 반성적 활동을 증진시켜야한다(Groome, 1980: 107).

둘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은 매일의 삶에서의 분별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분별력을 위한 교육은 성경공부를 통하여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필자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30대 여성들과 함께 룻기를 다루었다. 룻기 속에 생명을 향한 룻과 나오미의 협력, 보아스의 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의 생활 속에 생명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30대 여성들에게 생명을 위한 노력은 "살림"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단어로 적용해볼 수 있다. 우리의 살림은 진정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것"인가? 우리의 식탁은 가족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식탁이 되었는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식탁, 그러나 늘 잔소리와 다툼이 있는 식탁이 생명의 공동체에 어울리는 살림인가? 등등 성경공부 참여자의 구체적 삶의 현실에 와닿는 적용들을 찾아 말씀으로부터의 통

찰력과 분별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도로테 죌러(Dorothee Sölle)는 인지적인 앎과 사랑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히브리어 야다(yada)의 앎을 비교하여 설명한다(1998: 10).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단지 인지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 아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통찰력, 분별력을 키우는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행동으로서 분별력을 교육한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제자됨으로 표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여행하며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지혜를 배웠다(Hendriks & Jonker, 2000: 32). 이러한 지혜를 배움이 정체성 교육이 지향하는 바다. 화이트는 기독교교육이 성경이야기나 추상적 도덕원리를 가르치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들 사이에서 분별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2005: xi).

셋째,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회의 교육은 평생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은 개인의 삶의 여정을 반영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시간 안에 있는 개인의 변화와 발달을 고려해야한다. 그룸은 시간적 차원 안에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육자의 역할은 과거 순례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그리고 현재에도 유용한 것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와 동일하게 교육자의 역할은 현재와 과거가 모두 열려진 미래를 향한 창조적이고 변화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1980: 14).

넷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은 해석학적 배움을 지향한다. 그룹 안에서의 성경공부는 성경본문과 참여자들의 삶 사이의 해석적 작업을 요한다. 성경본문의 세계와 오늘날 독자의 세계사이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의해 성경의 증거들이 개개 성경공부 참여자들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증거로 삶에서 입증되어지는 삶으로의 해석으로까지 연결되도록 계속적인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름 찾기는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과 개개 참여자들의 이름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룻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나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살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개개 등장인물들이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나님 이름 속에 그들의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오해함으로 고통하였으나, 룻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생에서 은혜를 만나고, 축복을 체험한다. 나오미는 룻의 신실한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채우심을 체험한다. 다시 그녀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녀의 기쁨이 되신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녀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나오고, 이 이야기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참여자들도 이 이야기속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들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을 만날 수 있다.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참여자들을 각각 자신의 삶의 이야기, 삶의 세계 속에서 성경의 증거들을 해석하고, 자

신의 삶에서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III. 결론

이 논문은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한 정체성 교육를 다루었다. 리꾀르의 이야기적 정체성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됨을 전제하고, 타자의 이야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해석의 모델을 제공했다. 이러한 정체성 재구성의 작업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이야기로서 성경은 기독인의 정체성, 특히 이야기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 교회는 이 기독교의 이야기인 성경해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석의 공동체이다. 개개인의 정체성은 이 해석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호작용함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룹성경공부는 개인과 그룹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한다. 교회는 교육공동체로서 개인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성경공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성경공부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필자는 몇 가지 중요한 교수학적 원리들을 제시했다. 정체성 교육을 위해 성경공부는 개인의 상황을 반영해야한다.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해해야 한다. 개개인 참여자들의 삶의 세계가 성경의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자는 개인의 이러한 발견과 재구성 작업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와주는 여행의 동반자이다. 교회는 기독인 평신도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들, 경험들에 대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건, 문제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는 해석의 공동체로, 교육공동체로서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가능성들을 창조해내는 기독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들과 만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내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수 (1981), “한국 교회사에서 성경공부운동의 역사”, 『기독교 사상』, 10월.

김한식 (2007), “폴 리쾨르의 이야기적 해석학”, 『한국 언어와 문학』, 국어국문학회 2007/9.

윤성우 (2004), 『폴 리쾨르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폴 리쾨르 (2000), 『악의 상징』, 양명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Ark, J. van & Roest, H. de.(편저) (2004), De weg van de groep: Leidinggeven aan groepen in gemeente en parochie, Zoetermeer: Boekencentrum.

Alma, H. A.(1998), Identiteit door verbondenheid; Een godsdienstpsychologisch onderzoek naar identificatie en christelijk geloof, Kampen: Kok.

Calvin, John (200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John T. McNeill, (편저), F.L. Battles, (역),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Groome, T.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Harris, Maria (1989),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Hendriks, Jan & Jonker E.R. (2000), "'Laat u geen meester noemen', Een praktisch-theologische benadering van het leren als enkeling en het leren als gemeente", Praktische Theologie, 2.

Hettema, T. L.(1996), Reading for Good: Narrative Theology and Ethics in the Joseph 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icoeur's Hermeneutics, Kampen: Kok.

Jonker, E. R. (1992), Aan het woord komen: Hoe gemeenteleden van 17 jaar en ouder in gesprek raken met de Bijbel, Zoetermeer: Boekencentrum.

Kang, M. R. (2010), Interpretative identity and Hermeneutical community, Münster: LIT.

Ricoeur, Paul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 Worth :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Ricoeur, Paul (1984), Time and Narrative I, K. Mclaughlin & D. Pellauer(역)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oeur, Paul (1985), Time and Narrative II, K. Mclaughlin & D. Pellauer(역)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oeur, Paul (1988), Time and Narrative III, K. Blamey & D. Pellauer(역)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oeur, Paul (1992), Oneself as Another, Kathleen Blamey(역),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oeur, Paul (1995), Figuring the Sacred: Religion, Narrative, and Imagination, Minneapolis

Sölle, Dorothee (1998), Denken over God: Inleiding in de theologie, Baarn.

Stiver, Dan R.(2001), Theology after Ricoeur: New Direction in Hermeneutical Theology, Louisville (Ken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Valdes, M.J.(ed.)(1991), A Ricoeur Reader: Reflection and Imagination, Toronto(etc.): Harvester wheatsheaf.

Venema, H.I.(2000), Identifying Selfhood: Imagination, Narrative, and Hermeneutics in the Thought of Paul Ricoeur, New York : States University of New Your Press.

Vries, G.C. de, (2008), Leren zien-leren geloven: een praktische-theologische theorie van esthetisch-religieus leren, Gorinchem: Narratio.
Weber, H.R. (1995), The Book That Read Me: A Handbook for Bible Study Enablers, Geneva: WCC publications.
White, D.F. (2005), Practicing Discernment with Youth: A Transformative Youth Ministry Approach, Cleveland: Pilgrim Press.

Abstract

A Church as an educational community for Christian narrative identity formation

Kang Mi-Rang(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purposes to examine the role of Church in relation to identity formation of Christian. In the first part, we observed Ricoeur's self-hermeneutics, which is focusing on his narrative identity in order to understand Christian self-identity. Ricoeur's narrative identity theory offers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the other in the process of personal identity formation. He approaches self with narrative structure. His narrative self hermeneutics offer three phases of hermeneutic arc: prefiguration, configuration and refiguration. Through these three phases of our experience and the text, our identity will be refigured. In this formation process, interaction of the self and other, and institutions are important.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role of the church as a biblical hermeneutic community and educ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is study has chosen a Bible study in a small group setting as an educational space in the church. The Bible, a group and a leader will be three partners in this educational process. This Bible study intends to reform their identity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Biblical narrative and their narratives. This education for narrative identity formation suggests to consider the participant's context, and to develop the discernment for their daily life. The church should prepare for education reflecting of life long faith journey of Christians. Through the hermeneutical learning Christians form and reform their identity in relation with the Narrative of the Bible. The church is an educational space for this life long learning process.

Key words: Christian identity, small group Bible study, RIcoeur's narrative identity, refiguration, Hermeneutical community